

포커스 완주군 스테이박물관

온라인 가상공간서 전시 관람 시대 온다

스마트 박물관 구축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심도 있는 논의

완주=소완섭 기자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대한민국 스테이 박물관'이 디지털 트윈 기반 전시플랫폼과 가상현실(VR) 전시관 구축에 나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기획·상설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군은 26일 오후 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박성일 군수와 박영국 스테이박물관 관장, 자문위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대한민국 스테이 박물관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최하고 가상전시관의 플랫폼 다변화와 콘텐츠 제작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이 지난해 2월 문체부의 '스마트 공립 박물관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축 기술 자문과 벤치마킹,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올 1월 용역을 착수함에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스테이박물관의 실측·실감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가상전시플랫폼과 가상현실(VR) 온라인 전시관을 차질 없이 구축, 디지털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시 관람 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온라인 전시관이 구축되면 스테이 박물관은 가상 전시플랫폼 기반 전시관을 연출하고 큐레이션 작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스마트



폰이나 PC를 통해 스테이박물관의 기획·전시를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고회에서는 소장유물의 3D 디

지탈 이미지 제작과 활용 솔루션 구축, 온라인 전시관람 서비스 구현과 유지관리 방안 수립 등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신문섭 주무관,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상'

완주군에서 지난 25일 개최된 '2022년 전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 신문섭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개최한 이번 연구과제 발표회는 전라북도 시·군·구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신문섭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복정권 기자

김금희 주무관, 지방세 연찬회 '우수상'

익산시 세무과 김금희(사진) 주무관이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김 주무관은 '메타버스 내 수익 창출에 대한 과세 방안' 논문을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소유 증명서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위원은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상세계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 방안을 고찰하려는 참신한 주제라며 높이 평가했다. /익산=고운영 기자



부안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장려상'

부안군은 전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개최한 2022년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서 진행된 전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업무 연찬회는 전북 지역 시군이 세정운영과 제도개선 분야의 연구과제를 발표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는 신세원 발굴 및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연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해 도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특강 및 지방세정 현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군에서는 재무과 김민정(사진) 주무관이 '빈집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이라는 주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 과세 방안을 정립 제시해 내용전달력과 토론대응력, 정중관심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안=고병화 기자

익산예술의전당에서 국립현대무용단 'HIP' 공연

익산시 예술의전당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의 합합[HIP]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 4일 오후 3시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김설진·김보람·이경은 세 안무가의 작품을 모은 HIP 공연이 진행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익산예술의전당이 주관하는 이 공연은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 국악이 결합하는 협업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모처럼 독특하고 참신한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고운영 기자



'위생·맛·친질' 모두 잡은 '정음 맛집' 선정

정음시가 다양한 음식문화 정착과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맛집 25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25일 추가업소 6개소에 맛집 지정 증을 수여했다.

이날 정음 맛 집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대일정, 메이플트리, 미리네 정국장, 북 돼지삼겹살, 중식양자강이다. 이번에 선정된 맛 집들은 음식의 맛, 위생과 서비스, 시설, 환경 등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배부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음=박기수 기자

대한미용사회 전북도지회장에 최인자씨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24일 제18대 회장에 최인자(사진)씨가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최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대한미용사회 덕진구지부장을 연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부장 시절 넓은 협회사무실을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배려에 앞장섰다. /김종일 기자



조용근 교수 '희귀질환 극복의 날' 유공표창

조용근 전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2022년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유공 표창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전북대병원에서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조 교수는 희귀질환 극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표창을 수상했다. /공현철 기자

김철현 시민안전담당관, 재난관리유공 대통령 표창

김철현(사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55·사진)이 '제29회 방재의 날'을 맞아 재난피해 사전예방과 국가예산 확보, 예방관리 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5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방재의 날'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89년 UN 총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된 기념일이다. 김 담당관은 지난 1994년 공직에 입문, 교통 안전분야에서부터 자연재난 예방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는 평을 받았다. /복정권 기자



임실군, 마을 이야기 담은 성과물 전시회

임실군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 동안 임실문화원에서 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및 사진(그림) 등 사업 성과물을 공유하고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과소·고령화되어가는 농촌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잊혀져간 역사를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책을 제작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고유의 자원 및 자산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관람은 지양하고, 전시 기간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회 작품으로는 작년 시군역량강화 '우리마을 담다' 사업으로 5개 마을(삼계 범촌마을, 삼계 뇌천마을, 덕치 구담마을, 덕치 가곡마을, 지사 안하마을)의 이야기책을 비롯하여, 드론을 이용한 각각의 마을 전경 및 상징적 사진 촬영물, 이를 활용한 그림 등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임실=박길수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나눔명문기업 기입

한전 전북본부는 대한민국의 나눔문화를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객 기입 기부자 모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명문기업 현판을 전달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하는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누적 1억원 이상 기부한 기업에 나눔명문기업 현판과 인증패를 전달한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전라북도에서는 9번째 나눔명문기업으로 1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김종일 기자

무주군 치매인식 개선 학교 순회 교육

무주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학교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무봉초등학교 등 8개 학교 학생 414명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비롯해 흡연예방교육, 알코올 중독 및 자살예방교육 등이다.

군은 치매파트너 양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치매담당자가 치매의 정의 및 초기증상, 유병현황, 역할 등을 교육하고 향후 치매파트너로서 치매가족 자주모임,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등 봉사활동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흡연, 알코올 중독, 자살예방교육도 병행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이형열 기자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역량 강화

완주군이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로 군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26일 군은 지난 25일, 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민원응대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예로사항을 청취하고 친절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감정교정을 통해 정서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선애(주)총은교육 대표 정서코칭 전문 강사를 초빙했다. /완주=소완섭 기자

장수한우지방공사 '한우개량명인' 수여

장수한우지방공사가 국내 최고 한우의 자리를 가리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한국개량명인' 현판을 수여 받았다.

한국축육개량협회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 농가의 위상 강화와 참여 농가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한우개량명인'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유기종 기자

장수군 천천면민의 장 '박영애 손울엄'

제22회 장수군 천천면민의 날 행사가 오는 6월 5일 천천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이에 천천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산남·공익장에 박영애, 애향장에 손울엄 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산남·공익장 박영애(여·69)씨는 2008년부터 송탄마을에서 한우 20두로 축산업을 시작해 현재 115두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

또한 위생적인 축사 관리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며 장수한우의 명성을 높여 지난 4월에는 국회 노동환경위원장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농가의 모범이 되고, 친환경 발표회비 생산으로 환경정화에도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애향장 손울엄(56)씨는 2007년부터 국제라이온스클럽 활동을 펼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장장 전북도지사상, 정운천 국회의원 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천천면의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해 마을 행사나 체육행사 시 마을 주민들을 위해 기부활동을 펼쳐왔다. /장수=유기종 기자



김제시 공무원들 벽골제 역사 답사

김제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는 25일, 벽골제의 역사 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해 시 안전개발국 10여명의 부서장들과 제방 답사를 추진했다.

이날 답사는 문화재 브리핑을 시작으로 박물관 디지털영상관 관람 후 3.8km 제방의 주요 거점인 수문과 제방을 둘러보고 벽골제의 근 현대적 역사적 의미를 새겼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숙원이었던 미확인 수문지 수여자와 유통거가 확인되는 등 획기적 성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의 가치확산을 위해 시 공무원들의 이해선행을 위해 이같은 답사 프로그램이 지속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백용규 기자